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치시다

전문가 양성 무대해

‘인사(人事)가 만사(萬事)’ 다가오는 21세기는 고급화된 전문인력을 요구하는 시대다.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도태하지 않으면서도 대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다. 하지만 교계의 전문인력 양성 현황은 어떠한가.

얼마전 교계 7학술연구원의 기획실장 스님은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불교사전 편찬에 참여할 연구원 모집공고를 4대 PC 통신망에 띄웠다. 자격요건은 ‘불교학·불교철학 전공자로 한문 및 영어·팔리어 가능자’. 불교학 전공 인재가 구하는데 교계 내에서는 적당한 인력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 결국 통신망에 구인광고(?)를 띄웠다고 한다.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불사 체계화 동국대 등을 통해 정보화 사회 대응 알아봐주지만 도무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 한국불교학의 최대 교육기관이라고 자부하는 곳에서 마저 인력수급이 안되는 현실은 교계 인재불사의 한 단면일 뿐이지요.”

한국 대표종교로서 대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다 하려면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복지, 교육, 정보통신, 예술, 법률 뿐만 아니라 대북관련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1~2년 뒤 길게는 10~20년 뒤에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인력이 필요할지에 대한 인력수급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없이 이뤄지는 인력수급은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또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기존 기관의 교육에 이력적가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장학회를 그 성격과 내용에 따라 재개편, 중단 차원의 장학재단을 발족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함께 인력수급에 있어 공채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 향상과 신분적 보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장기적 인력의 ‘인재불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김정은 기자 (jkim@buddhapia.com)

인재불사 체계화 동국대 등을 통해 정보화 사회 대응

‘성역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성역화 사업은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3단계로 진행된다. ▲단기계획(1999~2001년): 현 교육원 위치에 광사 신축해 종합적인 행정·업무지역 확보. ▲중기계획(2002~2003년): 조계사 경내 환경개선을 위해 남측 마당을 확장하고, 가로변의 사찰 진입부에 조계종을 상징하는 대문과 건물을 신축한다. ▲장기계획(2004~2005년): 불교공립박물관을 비롯한 복합문화공간을 건립, 사부대중을 위한 역사와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토록 한다. 박물관은 2천평, 문예회관 1천평, 불교관련 단체 사무실 2천평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

75년 완공돼 조계종 총무원청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현재의 청사는 철거된다. 특히 현 청사는 94년과 89년 폭력의 현상이 되었다. 청사가 곧 분규의 상징처럼 인식됐을 사실이다. 새 청사 신축은 이같은 부정적인 이미 지를 털어버리고 2000년대를 선도하는 ‘새 불교’를 정립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고산스님이 취조 초 청사신축을 거론하며 중단분규 원인으로 청사 높이가 대중전보다 높은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청사의 지상 층수를 3층으로 한 점도 주목을 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 해암종정 5월11일 추대식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스님 추대법요식이 5월 11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해암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해인사 원당암측은 6일 총무원과 일정을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국제 재가불교성직자련 결성

진각종(총리장정 성초)은 2일 북경 조선불교도연맹 대표들과 실무회담을 갖고 국제재가불교성직자연합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국제재가불교성직자연합회는 진각종과 북한 일본 대외의 재가중단이 참여하며, 연라사무소는 내팔에 두기로 했다. 양측은 6월경 북경에서 2차

진각종-조불련 북경회담서 합의

실무회담을 갖기로 했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스님)도 3일 북경에서 조선 불교도연맹과 실무회담을 갖고 강원도 안변에 재? 국수공장을 건립키로 했다. 또 부처님오신날 합동법회를 미국이나 일본에서 개최키로 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조계종 재개정 촉구

사찰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규제했던 건축법 8조4항이 폐지됨에 따라 수행환경 침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이같은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을 공포했으며, 개정 건축법은 5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사찰 주변 사유지에서의 건축행위를 규제할 수 없어 수행환경 침해가 우려된다”며 정부 관계당국에 8조4항

정부 사찰주변 건축규제 법령 폐지 사찰수행환경 훼손 비상

의 부활할 것을 촉구키로 결의했다. 폐지된 8조4항은 “시정 준수 구상장은 담배 용도 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담배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도시미관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불교계는 그동안 이 조항을 근거로 사찰 주변의 건축행위를 막아왔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해암종정 5월11일 추대식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스님 추대법요식이 5월 11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해암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해인사 원당암측은 6일 총무원과 일정을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국제 재가불교성직자련 결성

진각종(총리장정 성초)은 2일 북경 조선불교도연맹 대표들과 실무회담을 갖고 국제재가불교성직자연합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국제재가불교성직자연합회는 진각종과 북한 일본 대외의 재가중단이 참여하며, 연라사무소는 내팔에 두기로 했다. 양측은 6월경 북경에서 2차

조계종 청사 9월 ‘첫삽’

180억 예산 2001년 완공...2005년까지 성역화 마무리

고산스님 “새도랑에서 새불교” 밝혀

“성역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성역화 사업은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3단계로 진행된다. ▲단기계획(1999~2001년): 현 교육원 위치에 광사 신축해 종합적인 행정·업무지역 확보. ▲중기계획(2002~2003년): 조계사 경내 환경개선을 위해 남측 마당을 확장하고, 가로변의 사찰 진입부에 조계종을 상징하는 대문과 건물을 신축한다. ▲장기계획(2004~2005년): 불교공립박물관을 비롯한 복합문화공간을 건립, 사부대중을 위한 역사와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토록 한다. 박물관은 2천평, 문예회관 1천평, 불교관련 단체 사무실 2천평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

75년 완공돼 조계종 총무원청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현재의 청사는 철거된다. 특히 현 청사는 94년과 89년 폭력의 현상이 되었다. 청사가 곧 분규의 상징처럼 인식됐을 사실이다. 새 청사 신축은 이같은 부정적인 이미 지를 털어버리고 2000년대를 선도하는 ‘새 불교’를 정립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고산스님이 취조 초 청사신축을 거론하며 중단분규 원인으로 청사 높이가 대중전보다 높은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청사의 지상 층수를 3층으로 한 점도 주목을 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 모형도(안). 대웅전 뒤쪽으로 총무원 청사가 배치된다.

조계종 재개정 촉구

사찰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규제했던 건축법 8조4항이 폐지됨에 따라 수행환경 침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이같은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을 공포했으며, 개정 건축법은 5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사찰 주변 사유지에서의 건축행위를 규제할 수 없어 수행환경 침해가 우려된다”며 정부 관계당국에 8조4항

5월8일 오후7시 세계평화기원 타종 조계·해인사등 동참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타종식이 5월 8일 오후 7시 전세계에서 거행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계사 수덕사 해인사 상원사가 타종식에 참가한다. 이번 타종식은 오스트리아 중

5월8일 오후7시 세계평화기원 타종 조계·해인사등 동참

제외사인 그라스마이어사와 오스트리아정부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전세계가 같은 날, 같은 지역시간에 타종함으로써 평화의 종소리가 전세계를 한바퀴 돌며 울려지르게 된다. 주한 오스트리아대사관측은 종단협의회를 통해 한국 사찰의 참여를 당부하며 “문화와 종교, 국가를 초월해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연결하는 행사”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재개정 촉구

사찰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규제했던 건축법 8조4항이 폐지됨에 따라 수행환경 침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이같은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을 공포했으며, 개정 건축법은 5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사찰 주변 사유지에서의 건축행위를 규제할 수 없어 수행환경 침해가 우려된다”며 정부 관계당국에 8조4항

5월8일 오후7시 세계평화기원 타종 조계·해인사등 동참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타종식이 5월 8일 오후 7시 전세계에서 거행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계사 수덕사 해인사 상원사가 타종식에 참가한다. 이번 타종식은 오스트리아 중

5월8일 오후7시 세계평화기원 타종 조계·해인사등 동참

제외사인 그라스마이어사와 오스트리아정부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전세계가 같은 날, 같은 지역시간에 타종함으로써 평화의 종소리가 전세계를 한바퀴 돌며 울려지르게 된다. 주한 오스트리아대사관측은 종단협의회를 통해 한국 사찰의 참여를 당부하며 “문화와 종교, 국가를 초월해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연결하는 행사”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구산신문 참선 기행

4월 : 가지사문(보림사)-운주사·쌍봉사

본사는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불교의 선택을 따라 ‘구산신문 참선기행’을 떠납니다. 4월 첫 기행은 가지사문의 중심도량인 보림사와 외불로 유명한 운주사, 국보 칠감전사부도암이 있는 쌍봉사를 참배합니다. 구산신문에 대한 이해는 독자 여러분의 선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출발: 4월 24일(토) 밤10시 - 조계사 앞
- 인내: 황호균(전남대 박물관 학예연구사)
- 회비: 4만5천원(조사 중식 포함)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후원: 한국불교연구원 협찬: 일양약품·대한불교교과인회

TV 인터넷 불교정보사업 시작합니다

컴퓨터의 ‘컴’ 자도 모르는 ‘컴맹’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집에서 보는 TV에 인터넷TV 수신기만 설치하면 간편하게 인터넷 검색에서 PC통신 전자우편까지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TV리모콘으로 작동하는 ‘인터넷 안방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불교정보화에 앞장서온 본사는 홈TV인터넷과 함께 ‘인터넷 TV’에 불교정보를 독점 제공합니다. 또, 인터넷 TV를 통해 중단 분무원청 네트워크와 포교에 필수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화 사업을 개시합니다. 인터넷 TV에 가입하시면, 중단이나 사찰의 각종 공문, 법문자료 등을 인터넷TV로 송·수신할 수 있으며 불교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중단과 사찰, 불자 가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가입 문의: 현대불교신문 전라정보실 (02)732-1520 · 737-8881

‘생명나눔실천’ 4월 대법회

확장유언 및 사후 장기기증 서약
 △1차: 1999년 4월 18일 오전 10시30분 광주 중심사
 △2차: 1999년 4월 22일 오전 11시 예산 수덕사
 주최: 생명나눔실천회 ·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수덕사 · 중심사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6면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생명의 고귀함 - 불자님들의 마음입니다

98년에 보내 주신 1200만 불자님들의 지극한 사랑으로 대동소반은 IMF환란을 무사히 극복하여 왔습니다. 불자님을 향한 한분 한분의 사랑에 보답하고, 생명의 고귀함을 존중하는 대동소반에서는 초강력 미니소화기 불자비를 출시하였습니다. 불자님들의 가정과 이웃을 위하여 초강력 미니소화기를 준비하세요.

초강력 미니 소화기 불자비 특징

- 화력변동식 순간강력 소화기로 어린이 노약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음
- 편안 소화기처럼 손잡이 주머니 교체 할 필요 없음
- 0.5kg를 태워쓰는 소형 미니 초강력 미니소화기 사용 가능
- 석유 가스 휘발유 고무 등 다양한 위험한 불에 견고 견디기
- 소리는 오히려 사용 가능함
- 다양한 신맛해져 컵이나 개량해 생수도 마실 수 있음

자매품

대동소반의 초강력 미니소화기 불자비 선물세트입니다. 불자님들의 이웃사랑을 위해 선물하세요.

구입문의: (02)2215-0723